

학습사전에서의 접사 처리의 문제

심 혜 령*

■ 목 차 ■

- I. 서 론
- II. 기존 사전에서의 문법적 기능을 가진 접사의 처리
- III. 교육용 기초 학습사전에서의 접사 처리
- IV. 결 론

I. 서 론

우리말에는 어기(語基)의 앞 또는 뒤에 붙어서 뜻을 덧붙태거나 어기의 품사를 바꾸는 등의 기능을 하는 언어 부류들이 있는데, 보통 이를 접사라고 하고 이러한 언어적 과정을 파생이라고 한다. 이때 접사는 결합하는 위치에 따라, 어기의 앞에 붙는 접두사와 어기의 뒤에 붙는 접미사로 나눌 수 있다.

지금까지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본 파생이란, 형태론적 단위에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과정이므로, 파생접사의 작용역은 단어 내부에 국한되고, 결합하는 요소도 통사적으로·의미적으로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설정된 파생접사의 특성에 반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만한 경우나 실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연구원

이 글은 일반적으로 형태론적인 관점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접사들을 중심으로 일반 사전에서의 처리를 살펴본 다음, 이를 토대로 학습용 사전에서는 접사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논의해보는 것이 목적이다.

Ⅱ. 기존 사전에서의 문법적 기능을 가진 접사의 처리

접두사가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들이 있는데,¹⁾ 다음의 다섯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첫째. ‘매(每)-’, ‘대(對)-’ 등과 같이 어기의 품사를 바꾸는 접두사.
- 둘째. 특정한 어기에 결합하여 파생된 복합어를 부정어로 만들어서, 그 단어가 쓰이는 문장 전체를 부정의 의미를 지니게 하는 경우.
- 셋째. ‘귀(貴)-’나 ‘폐(弊)-’처럼 경어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접두사들.
- 넷째, 접두사이면서 형태론적 구성인 단어뿐만 아니라, 통사론적 구성인 구에도 붙는 부류들.
- 다섯째. 부사성 접두사 중에서 ‘엇-’, ‘맞-’과 같이, 파생용언을 대칭용언으로 바꾸는 부류들.

기존에 파생접미사로 처리되고는 있으나 전통적 개념의 형태론적 파생 접미사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곤란한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첫째. ‘짜리, 꼴, 쯤, 씹, 끼리, 답다’ 등 통사적 구성체에 붙는 경우.
- 둘째. 앞에 오는 어기²⁾에 따라 그 쓰임을 달리하는 ‘썩, 군,

1) 임흥빈(1989), 고창수(1992), 시정곤(1997) 등에서는 통사적인 기능을 하고 통사적 언어 단위에 붙는 접미사들을 ‘통사적 접미사’라 하여, 통사적인 기능을 하는 접사들에 대한 논의를 하였는데, 심혜령(1998)에서는 이러한 ‘통사적 접사’라는 개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님……’ 같은 경우.

셋째. 어기와 접미사 결합 시 음운적, 형태적 변형을 일으키는 경우나 그러한 변형의 표시로서 사이시옷이 오는 경우.

넷째. ‘적, 용, 당, 성’과 같이 우리말과는 그 의미적 제한이나 분포를 달리하면서 통사적 구성체에도 이어날 수 있는 한자어.

앞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의 ‘어거나 어근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형태론적 영역 내의 형태소’로서 접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전통적 개념의 파생접사를 부정하지는 않되, 그 개념에 부합되지 않는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각각의 예들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며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하여 분류하려 한다.

1. 접두사의 사전적 처리³⁾

첫 번째 부류는 ‘매(每)－’, ‘대(對)－’ 등과 같이 어기의 품사를 바꾸는 접두사들이다. 접두사 ‘매(每)－’는 ‘월, 달, 일’ 등의 명사와 결합한다. 대부분의 접두사는 어기의 품사를 바꾸지 않는 데 비해, 접두사 ‘매－’는 명사와 결합하여 파생어 ‘매월, 매달, 매일’을 만들면서 파생어를 어기의 품사와 달리 부사로 바꾼다.

접두사 ‘대(對)－’는 ‘～에 대한’, ‘～에 대항하는’의 뜻을 가지는데, 일부 명사와 결합하여, 파생된 복합어는 관형사적으로 쓰인다.

(1)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러시아의 **대**한국 관계 정상화, 야당

2) 여기서 ‘어기’란 접사가 붙을 수 있는 언어 형식으로서 ‘어근’, ‘구’, ‘문장’ 등을 망라하는 개념이다.

3) 이 글은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의 ‘제13회 언어정보 연찬회’에서 발표된 것을 정리, 보완한 것이다. 접두사의 경우 사전 처리라는 점에서 접미사와의 논의의 일관성을 위해 공동 발표한 부분을 일부 정리하고 예를 보완하여 그 논지를 원용하였다. 접두사 부분은 유현경(1999)에서 자세히 기술되고 있다.

의 대정부 투쟁

(1)에서 보면 접두사 ‘대(對)-’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의 기능을 한다. ‘대(對)-’의 의미는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관계 정상화, 야당의 정부에 대항하는 투쟁’ 등으로, 결합하는 명사를 수식할 뿐 아니라, 명사를 논항으로 요구하는 용언의 관형사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일반 사전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2) ‘대-’의 사전적 처리

ㄱ. <우리말 큰사전>

대-(對)(앞)□~에 대한, ~에 대항하는’의 뜻.

#대일 정책, 대전차포.

ㄴ. <연세한국어사전>

대-(對)(접두)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에 대한, ~에 대항하는’의 뜻을 나타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야당의 **대정부** 투쟁.

ㄷ. <조선말 대사전>

대(對) 「관」 (다음에 오는 대상에 대한)의 뜻을 나타낸다. Ⅱ ~아 세아관계.

ㄹ. <표준 국어 대사전>

대(對) 「접사」 (고유명사를 포함하는 대다수 명사 앞에 붙어) ‘그 것에 대한 또는 그것에 대항하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대국민) 사과문 / {대북한} 전략.

위를 보면 ‘대-’가 통사적 구성체 앞에 오게 되는 통사적 특성에 대해 전혀 언급이 되어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조선말대사전>에서는 그 통사적 특성에 대해 인식하여 접두사가 아닌 관형사로 다루고 있다.

두 번째 부류로, 특정한 어기에 결합하여 파생된 복합어를 부정어로 만들어서, 그 단어가 쓰이는 문장 전체를 부정의 의미를 지니게 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다. 이러한 접두사로는 ‘부(不)-, 불(不)-, 비(非)-, 미(未)-’ 등이 있는데, 이런 종류의 접두사는 조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무척 생산성이 높다.⁴⁾ 사전에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보자.

(3) ‘비-’의 사전적 처리

ㄱ. <우리말 큰사전>

비-(非)(앞) **㉠**한자말 뿌리에 붙어 ‘잘못, 아님, 그름’ 따위의 뜻.
#비무장, 비인도적, 비정상적.

ㄴ. <연세한국어사전>

비-(非)(접두) [일부 한자어 앞에 붙어] ‘않음, 아님’의 뜻을 나타냄. #비무장, 비폭력, 비생산적.

ㄷ. <조선말 대사전>

비-(非)「앞」(한자말 명사의 말뿌리에 붙어) ‘안, 아니, 아님’이란 뜻을 나타낸다. Ⅱ ~무장지대. ~합법적 투쟁. ~도덕적.

ㄹ. <표준 국어 대사전>

비-(非)「접사」(일부 명사 앞에 붙어)‘아님’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비공식}/{비무장}/{비민주적}/{비인간적}/{비생산적}/{비업무용}

세 번째 부류는 ‘귀(貴)-’나 ‘폐(弊)-’처럼 경어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접두사들이다. ‘귀교(貴校)’라든지, ‘폐사(弊社)’ 등의 단어가 쓰인 문장에서는 이러한 단어와 호응하는 경어법 체계를 사용하게

4) 김석득(1992: 138-141)에서도 ‘귀회사’와 같은 구조에서 명사에 대한 높임의 뜻더함과 낱말 파생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통어상의 높임 범주와 직접 관계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된다. 사전에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4) ‘귀-’의 사전적 처리

ㄱ. <우리말 큰사전>

- 귀-(貴)(앞) ① 상대방의 것을 높이는 뜻. #귀부인, 귀사.
② 존귀하거나 회귀하다는 뜻. #귀금속, 귀공자.

ㄴ. <연세한국어사전>

- 귀-(貴)(접두) ① [일부 명사의 앞에 붙어] 상대방의 것을 높이는 뜻을 나타냄. #귀사, 귀국.
② (신분 따위가) 존귀하다는 뜻을 나타냄.
#귀부인, 귀공자.

ㄷ. <조선말 대사전>

- 귀(貴)「관」 ① 상대방에 대하여 예절과 경의를 나타내며 ‘당신네’의 뜻을 나타낸다. ㄱ ~연구소. ~당. ~정부. ~단체. ~대학.
② (앞불이로 쓰이어) ‘회귀한, 귀한’의 뜻을 나타낸다. ㄱ ~금속. ~공자.

ㄹ. <표준 국어 대사전>

귀(貴)「관」 (일부 한자어 명사 앞에 쓰여)상대편이나 그 소속체를 높이는 뜻을 나타내는 말. ㄱ{귀} 신문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貴)「접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존귀한 이나 회귀한 또는 값비싼’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ㄱ{귀공자}/{귀금속}/{귀부인}

‘귀’의 경우는 <조선말 대사전>이나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높임의 의미일 때는 그 통사적 특성에 주목하여 관형사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접두사이면서 형태론적 구성인 단어뿐만 아니라, 통사

론적 구성인 구에도 붙는 부류들을 들 수 있다.

(5) ‘속-’의 사전적 처리

ㄱ. <우리말 큰사전>

속(續)(이름씨) ① 속편의 준말.

② 후속의 준말.

ㄴ. <연세한국어사전>

속-(續)(접두) [전에 나온 글 또는 그림 이름에 붙어] ‘이어서 나
옴’의 뜻을 나타냄. #속사미인곡, 속 ‘미워도 다시
한 번’, 속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ㄷ. <조선말 대사전>

속(續)「명」 그전의 일이나 글, 그림 등의 뒤를 이은 것. ㉡ ~으
로 내다. ▷ 앞붙이로 쓰인다. ㉡ ~영문학강좌.

ㄹ. 표준국어 대사전

속-續「접사」(서명 또는 작품명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
어)‘계속 이어지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속대
장경}/{속동문선}/{속명의록}/{속자치통감}.

그런데 속을 접두사로 볼 경우에도 ‘속 미워도 다시 한 번’, ‘속 바
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과 같이 단어가 아닌 구에도 붙을 수 있는데, 이
때는 읽기의 편의상 마치 관형사처럼 띄어쓰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우리말 큰 사전>이나 <조선말 대사전>에서는 접두사로 분류하지
않고 명사의 준말로 봄으로써 그 통사적 특성을 설명하려 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부사성 접두사 중에서 ‘엇-’, ‘맞-’과 같이, 파생용언
을 대칭용언으로 바꾸는 부류들을 들 수 있다.

(6) ㄱ. 엇걸리다, 엇나가다, 엇물리다, 엇세우다, 엇섞이다, 엇박다,

엇불다

- ㄴ. 맞걸다, 맞걸리다, 맞겨누다, 맞겨루다, 맞견주다, 맞견다, 맞걸리다, 맞놓다, 맞닥뜨리다, 맞대다, 맞불다, 맞쫓다, 맞췌다, 맞찌르다, 맞추다, 맞췌다

‘엇-’은 ‘어긋나게, 비뚤로’의 뜻을 가진 부사성 접두사이고, ‘맞-’은 ‘마주’의 뜻을 가진 부사성 접두사이다. (6)에서 보듯이 접두사 ‘엇-’과 ‘맞-’은 대칭성이 없는 용언의 앞에 붙어서, 대칭용언을 파생시키는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

(7) ‘맞-’의 사전적 처리

ㄱ. <우리말 큰사전>

- 맞-(앞) ㉠ ‘마주’의 뜻을 나타냄. #맞담배질, 맞바꾸다.
 ㉡ ‘서로 비금비금함’의 뜻을 나타냄. #맞적수, 맞먹다.

ㄴ. <연세한국어사전>

- 맞-(접두) ㉠ [일부 용언이나 명사에 붙어] ‘마주’의 뜻을 나타냄. #맞대다, 맞불다.
 ㉡ ‘상대방의 행위에 대항하는’의 뜻을 나타냄. #맞고소, 맞불, 맞담배.
 ㉢ ‘그에 걸맞는 상대’임을 나타냄. #맞먹다, 맞상대.

ㄷ. <조선말 대사전>

- 맞-「앞」 I (명사의 말뿌리에 붙어서) ㉠‘마주하는’의 뜻을 나타낸다. ㉡ ~그물질. ~담배질. ~장구. ~절. ~인사. ~총질. ㉢‘두 부분이 서로 맞물리는 관계에 있거나 두 물체가 서로 맞추어지는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 ~미달이. ~접. ~췌. ~단추. ㉤‘서로 겨루는 대상들 사이에서 역량 관계 등이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고 상대해 나갈 수 있는 정도임’을 나타낸다. ㉥ ~장기. ~바둑. ~시름. ~수.
 II(동사의 말뿌리에 붙어서) ㉦‘서로 상대가 되어 같은 행동을 하는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 ~밀다.

~당기다. ~들다. ~끝다. ②‘서로 상대되는 두 대상이 연결되는 관계에 있거나 접하는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ㄱ ~대다. ~달다. ~붙다. ~비비다. ③‘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ㄱ ~먹다. ~비기다.

ㄱ. <표준 국어 대사전>

맞-「접사」 ①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마주 대하여 하는, 또는 서로 비슷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ㄱ{맞고함} / {맞담배} / {맞대결} / {맞바둑} / {맞적수}.
② (일부 동사 앞에 붙어) ‘마주 또는 서로 엇비슷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ㄱ{맞들다} / {맞물다} / {맞바꾸다} / {맞부딪치다} / {맞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접두사는 의미를 더할 뿐 아니라 일부의 접두사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문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접두사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음을 두고 볼 때,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의 부류가 다섯 종류에 이르고 그 수도 10여 개가 넘는다는 사실은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접두사를 예외적인 현상으로 취급할 수 없게 한다. 소위 ‘통사적 접미사’들과 이러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접두사들을 살펴보면, 접사라는 범주가 결코 형태론적인 차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형태·통사론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함을 알 수가 있다. 즉, 기존의 논의에서 형태소라는 단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형태소를 단어형성의 기본단위로 보고, 단어 내부의 구성 단위로 규정한 기존의 형태론의 관점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접미사의 사전적 처리

여기의 뒤에 붙어 뜻과 품사를 바꾸는 작용을 하는 접미사의 경우, 작용역이 단어 내부에 국한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유창돈(1980)에서도 “접미사는 언제나 어떤 기어(基語)에 연결되어 그 기어로 하여금 어떤 품사의 자리에 처하게 하느냐하는 어법적 기능을 하는

어사라고 하여 순전히 형태론에서 다룰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파생은 형태론적 단위에 접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보고, 굴절은 구 이상의 형식에 접사를 붙여 문장의 형성에 관여하는 과정으로 보아 대체로 그 둘의 결정적 차이를 관련 맺는 어기의 범주의 차이로 보았다.

이를 위시하여 파생접미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견해들을 정리하면 파생접미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8) 파생접미사의 특성

- ㄱ. 파생접미사는 그 지배 범위가 단어를 넘지 못하며, 단어 내부의 요소인 어근이나 어간과 관계를 맺는다.
- ㄴ. 파생접미사는 자립성이 없으며 어기와의 결합에 의해 새로운 단어를 이룬다.
- ㄷ. 파생접미사가 결합할 수 있는 어기는 통사적 의미적으로 매우 제약적이다.

그런데 피동접미사와 사동접미사의 경우, 그것이 실현되는 문장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기존에 아무 의심 없이 형태론의 영역 안에서 다루었던 접미사가 결합하는 어기가 구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어 지금까지 ‘어기나 어근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형태론적 영역 내의 형태소’로서 접미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음의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9) ㄱ. [수업이 끝날 때]쫘에 교문 앞으로 나와라.

- ㄴ. [한 개에 백 원]짜리로 열 개를 샀다.
- ㄷ. 그는 [한 나라의 수장]답게 의연히 처신했다.
- ㄹ. 그 분은 [평생을 고행한 고승]답게 앓은 채로 입적하셨다.

그런데 어기의 범주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 볼 수도 있

다. 즉 ‘접미사’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형태론의 문제로 보고, 그 때 문제가 되는 파생접미사, 즉 구 이상의 어기를 가지는 의심스런 접미사 중 일부는 접미사 목록에서 빼내어서 처리하고 일부는 어휘화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짜리’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한다.

(10) ㄱ. [백 원]짜리 동전

- ㄴ. 거기에 [한 학년에 다섯 학급]짜리 A초등학교가 있다.
- ㄷ. 제게는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 ㄹ. [한 개에 백 원]짜리로 열 개만 사.

(11) ‘짜리’의 사전적 처리

ㄱ. <우리말 큰사전>

- － 짜리(뒤) ① 무슨 옷을 입은 것으로써 그 사람을 가리키어 일컫는 홀한 말. #양복짜리, 창의짜리, 장옷짜리
- ② 얼마의 값이 되는 물건을 가리키는 말. #서푼짜리, 백원짜리
- ③ 얼마의 수로나 양으로 된 물건을 가리키는 말. #한 뺨, 열 개

ㄴ. <연세한국어사전>

- － 짜리(접미) ① [돈의 액수를 나타내는 말에 붙어] 얼마의 값에 해당함을 나타냄. #만 원짜리 지폐, 천 원짜리 공책
- ② [물건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에 붙어] 얼마의 분량으로 되었음을 나타냄. #오십 개짜리 사과 한 상자

ㄷ. <조선말 대사전>

- － 짜리 ‘뒤」(주로 이름수나 수량을 나타내는 대명사의 말뿌리의 뒤에서) ‘그러한 값이나 수량을 가진 물건’이라는 뜻. ㉪ 1원～. 얼마～.

ㄹ. <표준 국어 대사전>

－ 짜리「접사」 1 (수나 양 또는 값을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만한 수나 양을 가진 것’ 또는 ‘그만한 가치를 가진 것’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한 {뽕짜리}/열 {살짜리}/오십 {권짜리}/방 두 {개짜리}/백 {원짜리}/{얼마짜리}.

2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런 차림을 한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양복짜리}/{장옷짜리}/{창의짜리}.

ㄱ.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 짜리[짜리 [ts'ari] 1 ‘얼마의 값’의 뜻을 나타낸다. ㉠만 원짜리 지폐/천 원짜리 공책/오백 원짜리 동전. 돈의 액수를 나타내는 말에 붙여서 쓴다.

2 ‘얼마의 분량으로 되어 있다’의 뜻을 나타낸다. ㉡열 권짜리 사전/오십 개짜리 사과 한 상자. 물건을 세는 단위(개, 권……)를 나타내는 말에 붙여서 쓴다.

<연세 한국어 사전>에서는 통사적 구성체를 어기로 가지는 접사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이들 중 일부는 의존명사로 분류하였고, 일부는 의미 풀이에서 그 의존 명사적 특성을 표시하거나 혹은 문법적 특성을 달리한다는 표시로 로마자로 중분류하기도 했다. 물론 일관성 없는 처리가 되기는 했지만 적어도 통사적 구성체 뒤에 오는 접사를 어떤 식으로든 달리 분류하여 표시하려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짜리’에서는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에 붙어]⁵⁾라는 전체를 달아 ‘짜리’가 나타나는 의미적 환경을 표시하는 동시에 의존 명사

5) []는 연세 한국어 사전에서는 의미 풀이에서 문법 설명 등을 풀이하는 표시로 쓰이고 있다.

앞에는 명사나 명사구 또는 관형사나 관형구가 반드시 와야 한다는 점에서 ‘짜리’ 앞에 통사적 구성체로서의 어기가 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12) ㄱ. 자꾸만 눈꺼풀이 무거운 추 **모양** 아래로 내려왔다.
 ㄴ. 희영은 쫓기는 암피둘기 **모양** 뒤뜰 쪽으로 걸어갔다.
 ㄷ. 몸을 도사리고 있는 배암 **모양** 감겨있는 염주의 알알이 불빛에 빛났다.

(12)를 보면 의존명사의 경우도 꼭 관형형 어미 {-ㄴ / -ㄷ}의 꾸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명사 혹은 명사구에 이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짜리’가 관형형의 꾸밈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존명사라 할 수 없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짜리’는 접미사가 아니라 의존명사로 볼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꿀, 어치……’등도 마찬가지로 의존명사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앞에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오게 되는 ‘님, 씨’와 같은 경우 앞에 오는 말에 따라서 그 음운론적, 형태론적 용법을 달리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연구나 사전류에서 여전히 접미사로 처리하고 이러한 것들이 가지는 용법상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역시 어휘화라는 개념이 유용하리라고 본다. 우선 사전에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보자.

(13) ‘씨’(氏)의 사전적 처리

ㄱ. <우리말 큰사전>

씨4(氏)(이름씨)씨 같은 성 받이를 나타내는 말.

(대이름씨) ‘그 사람’의 뜻으로 일컫는 말. #씨는 우리 문단의 일인자이다.

— 씨(氏)(뒤) 성 또는 이름에 붙어 ‘높임’의 뜻을 나타냄. # 김씨, 박씨 문중.

ㄴ. <연세한국어사전>

씨(氏)(의존명사) [성 또는 이름 뒤에, 높임을 나타내는 말로] ‘-이라는 성 또는 이름을 가지신 분’의 뜻. #김 씨, 철수 씨, 김철수 씨.

씨(氏)(대명사) [이름 대신 쓰는 존칭으로] ‘그분’의 뜻. #씨는 뜨겁게 악수를 하고 난 후에 가까운 수풀로 가자고 하였다. #씨는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동경 갈 때 편지하여 달라고 했다.

-씨(氏)(접미) [성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가 성을 가진 집안, 사람’의 뜻을 나타냄. #이날 강릉 김씨 문중을 대표해서 ‘강릉 김씨의 고향’을 발표한 학생은 김인수였다.

ㄷ. <조선말 대사전>

-씨[氏] 「뒤」 ① 사람의 성이나 이름 밑에 붙이여 존칭의 뜻을 나타내는 말. Ⅱ 최~네 집안. 운~일가.

② (대명사로 쓰이여) “그 사람”의 뜻으로 좀 점잖게 이르는 말. Ⅲ 소문에 씨도 음악에 밝다고 하더군.

ㄹ. <표준 국어 대사전>

씨(氏) 「Ⅰ」 「명」(주로 문집이나 비문 따위의 문어에 쓰여) 같은 성(姓)의 계통을 표시하는 말. Ⅱ {씨는} 김이고, 본관은 김해이다.

「Ⅱ」 「명」 「의」 (성년이 된 사람의 성이나 성명, 이름 아래에 쓰여)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 공식적·사무적인 자리나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에서가 아닌 한 웅사람에게는 쓰기 어려운 말로, 대체로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쓴다. Ⅲ 김 {씨}/길동 {씨}/홍길동 {씨}/희빈 장 {씨}/그 일은 김 {씨가} 맡기로 했네.

「Ⅲ」 「대」 그 사람 을 높이 이르는 삼인칭 대명사. 주로 글에서 쓰는데, 앞에서 성명을 이

미 밝힌 경우에 쓸 수 있다. 『(씨는) 문단의 권위자이다.

－씨(氏) 「접사」(인명에서 성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그 성씨 자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김씨) / {이씨} / {박씨} 부인 / {최씨} 문중 / 의
유당 {김씨} / 그의 성은 {남씨입니다}

ㄷ.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씨² 【김철수 씨】(氏)[씨 s'i] <의존> ‘그런 성 또는 이름을 가지신 분’의 뜻. ㄱ 미션 씨는 마이클 씨를 찾으러 식당에 갔어요. / 김남수 씨에게 이 책을 좀 갖다 주시겠어요?
이름 뒤에 써서 높임을 나타낸다.

씨³ 【김씨】(氏)[씨 s'i] 성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그 성씨를 나타낸다. ㄱ 김씨 / 이씨 / 박씨 부르는 말로 쓸 때는 아랫사람에게 쓴다.

위에서 사전들을 보면 ‘－이라는 성 또는 이름을 가지신 분’의 뜻을 가지고 쓰이는 경우의 ‘씨’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거나 의존명사로서 접근하려는 의도를 보이지 않는 사전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한국어 학습 사전>의 경우 무엇보다 의존명사로서의 쓰임이 한국말 어휘 ‘씨’에서 가장 알아두어야 하고 많이 쓰이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실제로 한국어에서 주로 어떻게 쓰이느냐를 중점으로 두고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전에서 다루고 있는 대명사로서의 쓰임인 ‘씨’의 경우 일부 소설이나 고답적 문체에서나 주로 쓰이고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거의 그 쓰임을 잃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경우 굳이 한국어 학습 사전에서는 다룰 필요가 없는 것이다.

(14) ㄱ. 우리 김씨 문중의 대를 이을 귀한 손자.

ㄴ. 백정현 씨.

ㄷ. 어이 김 씨, 밥 먹었나?

ㄹ. 씨의 그런 행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위의 예 (14)를 보면 ‘씨’가 그 의미적 연결을 끊지 않은 채 접미사, 의존명사, 대명사의 세 단계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말에서 통시적으로 어휘 형태소가 문법 형태소화하는 문법화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동시에 문법 형태소의 어휘화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이는 예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소수의 전문적인 언어 전파자⁶⁾에 의해서도 삽시간에 새로운 언어 현상이 언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일반 언중들에게 널리 쓰이면 그것의 언어적 변형 과정은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씨’의 경우 일반적으로 접미사라고 할 때 들 수 있는 예는 (14ㄱ)뿐이고 (14ㄴ), (14ㄴ·)는 의존명사, (14ㄷ)은 대명사로 볼 수 있다. 다만 (14ㄴ, 14ㄴ·)를 의존명사로 두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앞에 관형사나 관형절이 오지 못한다는 점인데 앞에서 ‘짜리’를 살펴볼 때 이미 논증된 바, 꼭 의존명사라고 해서 관형사나 관형절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법은 없다. 게다가 ‘씨’의 경우 사람이나 적어도 의인화한 사물만이 선행할 수밖에 없는 의미적 환경에서는 더욱 관형사나 관형절이 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명사의 관형성만으로도 충분히 의존명사로 설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여기와 접미사 결합 시 음운적, 형태적 변형을 일으키는 경우나 그러한 변형의 표시로서 사이시옷이 오는 경우를 보면 우선 사전들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ㄱ. <우리말 큰사전>

- 발(뒤) <1>‘죽죽 내뻥치는 줄’의 뜻을 나타냄. &빋~, 땃~,
햇~, 국숫~.

6) 매스미디어 관계자나 컴퓨터 사용자, 언어학자, 소설가, 시인 등 언어를 주요 매개체로 삼는 이들이 매스미디어라는 도구를 이용해 지난 시절 몇 백 년에 걸쳐 이룬 언어적 변형을 며칠 또는 몇 달 만에 이루어 내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사회적인 공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대중에게 전파되어 널리 쓰이게 된다면 이미 어휘화나 문법화와 같은 변형의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죽죽 내뺨치는 듯 한 기운’의 뜻을 나타냄. &서
릿~. 꾹~이 좋다.

ㄴ. <연세한국어사전>

－발(접미) [일부 명사 뒤에 붙어]

① 죽죽 내리거나 내뺨치는 줄. #빗발, 핏발, 햇발.

② 흔적이나 행적. #글발.

ㄷ. <조선말 대사전>

발「명」 I 잇달리어 번어나간 줄기. | 산의 발을 타고 넘고 또 넘었다.

II (뒤붙이로 쓰이어) ① 죽죽 뺨은 줄기 또는 죽죽 줄이 진 것처럼 보이는 것'의 뜻. || 산~, 해~, 눈~, 비~, 땀~, 오줌~, 피~ ② 뺨뺨하고 반드럽게 된 상태. || 다리미~, 다듬이~ ③'남은 흔적이나 자리'의 뜻. || 면도~, 인~

ㄹ. <표준 국어 대사전>

－발「접사」 「1」(몇몇 명사 뒤에 붙어)기세 또는 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ㄱ{꺾발}/{말발}

「2」(일부 명사 뒤에 붙어) 효과 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ㄱ{약발}/{화장발}.

사전에서는 사이시옷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예문에서 보여주면서 대체로 접미사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조선말 대사전>에서는 명사로 대분류하고 대신 접미사처럼 쓰인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때 사이시옷이 쓰이지 않는 형태로 예를 들고 있다.

(15) ㄱ. 빗발, 핏발, 햇발

ㄴ. 고양이과

즉 예(15)를 보면 일부 접미사라고 보던 것들 중에서는 어기와 접사 사이에 사이시옷이나 음운 첨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이들이 자립형태 끼리의 결합인 합성어⁷⁾라는 뜻이 되고 그렇다면 뒤에 오는 말

은 접미사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 사이시옷은 맞춤법 상의 시옷이며 사실상 소리는 /t/이다. 이러한 /t/의 끼어들은 뿌리의 형태적 배합과 정에서 잘 나타난다. 이는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보아도 그것이 어떠한 말 본적 뜻을 가진 형태소라기보다는 뒷말을 분명히 독립적으로 발음해 주고자 하는 의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음운론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시옷은 중세 국어의 속격 조사에 이어지는 것이므로 사이시옷과 관련된 현상은 당연히 통사론적 측면을 가지며 또 현대 국어에서는 단어 형성에 국한되어 일어나므로 형태론적 측면도 아울러 가진다.

넷째로 ‘적, 용, 당, 성, 간…’과 같이 우리말과는 그 의미적 제한이나 분포를 달리하면서 통사적 구성체에도 이어날 수 있는 한자어를 살펴본다.

ㄱ. <우리말 큰사전>

—용:用(뒤) ‘쓰거나 쓰임. 또는, 그런 사물’의 뜻. &비상~. 연습~. 영업~. 자가~

ㄴ. <연세한국어사전>

—용(用)(접미) [주로 한자말뒤에 붙어] ① ‘어떠한 곳에 쓰이는 것 또는 그런 쓰임’을 나타내는 말. ㉠ 연습용 / 영업용 / 선전용.

②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 한정되어 쓰이는 것, 또는 그런 쓰임’을 나타내는 말. ㉡ 숙녀용 / 신사용 / 아동용. ㉢ 임산부용.

ㄷ. <우리말 큰사전>

—용:用(뒤) ‘쓰거나 쓰임 또는, 그런 사물’의 뜻. &비상~. 연습~. 영업~. 자가~.

ㄹ. <조선말 대사전>

—용(用) 「뒤」 “무엇에 쓰거나 쓰이는 물건”임을 나타낸다. ㉠ 사

7) 과거에 명사구의 속격화라는 통사론적 기능을 가졌던 ‘-ㅅ’은 현대국어에서는 주로 합성명사의 내부에 출현하므로서 형태론적 합성명사 형성 과정에 관여하게 되었다.

무~ 책상. 비상~ 미시가루. 대학~. 학생~.

ㄱ. <표준 국어 대사전>

－용용 「접사」(일부 명사 뒤에 붙어)‘용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사무용)/{업무용}/{연습용}/{영업용}.

- (16) ㄱ. 머리에 비듬이 많은 사람**용** 샴푸.
 ㄴ. 피부병에 걸려 털이 빠지는 애완견**용** 샴푸
 ㄷ. 비상시 대피**용** 보트

(17) 이 쟁의가 모두 단체 행동**화**한 것은 아니다.

(18) 사이가 좋은 오래 같이 산 노부부**간**

위의 (16), (17), (18)의 예를 보면 ‘용, 화, 간’ 등의 한자어는 그것이 붙는 어기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이 한자어나, 고유어, 단어 및 구와 절을 망라하여 자유롭게 결합될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언중이 자유로이 새롭게 결합 가능할 정도로 명시적 어휘 의미를 가졌다는 점에서 어휘화하여 하나의 독립된 실사일 가능성이 많다.

Ⅲ. 교육용 기초 학습사전에서의 접사 처리

위에서 살펴본 문법적 기능을 가진 접사들의 경우, 어기와의 결합에 있어서나 의미적인 측면에서 단어 내부 구성이라기보다 다른 어휘 형태소들처럼 문장 내의 다른 성분들과도 관계를 맺는 통사적 차원에서 단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어 사용자들의 의식 속에서도 분리가 가능하고 어휘적인 의미 추출이 비교적 수월하며 조어적 측면에서 생산성이 매우 높은 접사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접사들은 교육용 학습사전에서 표제어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전 기술에 있어서도 일관된 설명이 필요하다.

교육용 기초학습사전의 사용자는 일반사전 사용자와는 달리 초등 학생이나 그 외의 기초적인 한국어 학습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표제어의 선정에 있어서 일반사전과 달리 기초학습용 어휘가 말뭉치 빈도에 의해서 추출되어야 하며, 접사나 어미, 조사 등의 문법 형태소들의 표제어 선정 및 사전 기술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기초학습자는 문법 형태소에 대한 인지도나 형태소 분석, 문법적 지식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법 형태소들을 지나치게 표제어로 많이 선정하거나 자세한 문법 설명 등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학습자에게 거부감을 주기 쉽다.

교육용 기초학습사전에서의 접사 처리를 위해서는 우선 접사 중에서 어떤 것을 표제어로 올릴 것인가 하는 표제어 선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표제어로 선정된 접사들의 문법적인 부분의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세 번째로 사전 이용자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접사와, 접사로 인해 파생된 파생어와의 관련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19)

접두사: 강, 개, 객, 과, 군, 급, 날, 내리, 노, 다, 대, 되, 뒤, 들, 들이, 물, 미, 반, 범, 별, 부, 불, 비, 빗, 신, 새, 생, 선, 설, 속, 쇠, 순, 시, 안, 수, 제, 통, 한, 후, 날, 늦, 덧, 된, 만, 맨, 맹, 솟.

접미사: 네, 금, 부, 별, 선, 대, 안, 과, 비, 학, 동이, 화, 자, 집, 기, 금, 채, 지, 집, 데기, 들, 간, 권, 방, 내기, 댁, 권, 님, 순, 통, 배, 권, 대, 되다, 집, 대, 같아, 채, 객, 인, 도, 보, 기, 전, 국, 머리, 부, 지, 들이, 급, 꾸러기, 동이, 뜨기, 박이, 배기, 뺨이, 수, 아치, 장이, 쟁이, 족, 지기, 투성이, 팔이.

위의 (19)은 교육용 말뭉치에서 상위 빈도 100 안에 든 접사 목록이다. 표제어 선정 문제를 보자면 우선 교육용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접사의 목록을 작성하게 된다. 이 접사의 목록 작성에서

중요한 것은 접사의 생산성과 어휘 의미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접사와 그로 인한 파생어와의 관련성이 단순한 품사 표기를 넘어서서 효율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기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기술이 가능할 것이다.

(20) 생-(구분자) 생야채.(품사) 접두사(한자). 生

- 뜻1. [어떤 말 앞에 붙어서] ‘익히지 않은’, ‘가공하지 않은’, ‘원래대로의’, ‘손대지 않은’의 뜻을 나타낸다. #생야채, 생굴, 생밤, 생가죽, 생것, 생살, 생이빨.
- 뜻2. [어떤 말 앞에 붙어서] ‘엉뚱한’, ‘공연한’의 뜻을 나타낸다. #생야단, 생고생
- 뜻3. [어떤 말 앞에 붙어서] ‘살아서 당하는’, ‘혹독한’의 뜻을 나타낸다.

(21) -쟁이.(품사)접미사

- 뜻1. [어떠한 성질, 습관, 모양, 행동 따위를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서] ‘그러한 사람이나 동물’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상투쟁이, 심술쟁이, 욕심쟁이, 담쟁이.

위와 같이 사전 기술의 문제에서는 될 수 있는 한, 기술 유형을 통일하게 하여 학습자가 문법적인 개념어에 대한 지식 없이도 자연스럽게 문법형태소임을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초 학습사전의 경우 한국어 어휘를 제대로 이해하여 잘 부러 쓰게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그 문법적 기술보다는 한국어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모습을 최대한 반영한 기술이 훨씬 유용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말뭉치 검색을 통한 실질 사용례의 확보와 분석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특히 파생어와의 관련에 있어서는 기초학습사전에 접사가 따로 기재되는 경우는 매우 적을 것이고, 게다가 예상되는 사전 이용자의 한국어에 관한 문법 지식이 접사와 파생어 간의 관계를 유추해 내기 힘들 것으로 생각되므로 기술된 접사와 관련 파생어들의 관계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접사의 단독 기술보다 실질적인 면에서 훨씬 더 필요

하리라고 본다.

IV. 결 론

지금까지 일반적인 의미의 파생이란, 형태론적 단위에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여겨 왔으므로, 그런 관점에서의 파생접사의 작용역은 단어 내부에 국한되고, 결합하는 요소도 통사적으로·의미적으로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부 접사들의 경우 일반적인 파생접사의 특성에 반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만하거나 다른 어휘 형태소들처럼 기능하는 경우나 실례가 실제 한국어 쓰임에서는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이들은 언어 사용자들의 의식 속에서도 분리 가능하고 어휘 의미 추출도 비교적 수월하여 아주 생산성 높은 접사이거나 아니면 아예 접사 목록에서 제외하여야 하거나 그 단계에 근접한 자립적인 경우인 것이다.

그런데 교육용 기초 학습사전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러한 접사들은 생산성이 높고 자립적이어서 표제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 기술에서 일관적인 설명과 원칙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접사가 비록 어휘적 자립성이 적다는 점에서 기존 사전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거나 간단하게 다루어지고 있었으나 실은 접사 안에도 다양한 양상과 단계의 자립성과 생산성을 갖춘 접사가 존재하고 있는 한, 그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접사는 사전에서 필히 그 파생어와의 관련성이 명시되는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향후 접사 전반과 문법적 기능의 접사들을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살펴 접사 내의 다단계성을 좀 더 규명하여 접사 내에서의 분류 목록을 완성한 뒤, 그 목록에 맞추어 각기 다른 일관된 설명과 원칙을 제공하고, 그를 토대로 교육용 기초학습사전에서 다루어주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논 저

- 고영근(1970), “현대국어의 준자립형식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6-1.
- 고영근(1974), 『국어 접미사의 연구』, 백합출판사.
- 고영진(1997), 『한국어 문법화 과정』, 국학자료원.
- 고창수(1986), “어간 형성 접미사의 실정에 대하여”, 『한국 어학연구』
- 고창수(1992), “국어의 통사적 어형성”, 『국어학』 22.
- 구본관(1997), “의미와 통사 범주를 바꾸지 않는 접미사류에 대하여”, 『국어학』 29.
- 구본관(1998), “접미사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8-1.
- 김석득(1992), 『우리말 형태론-말본론-』, 탑출판사.
- 김정은(1995), 『국어 단어형성법 연구』, 박이정.
- 김창섭(1984), “형용사파생 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 『진단학보』 58.
- 김창섭(1992), “파생 접사의 뜻풀이”, 『새국어생활』 2-1, 국립국어연구원.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국어학총서21, 국어학회.
- 김창섭(1998), “접두사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8-1, 국립국어연구원.
- 남윤진(1997), “현대국어의 조사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박진호(1994),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 구조”, 『국어연구』 123호.
- 박형익(1999), “국어 사전에서의 고유어 접두사”, 『전국 국어국문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국어학총서18, 국어학회.
- 시정근(1997),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한국문화사.
- 심혜령(1998), “통사적 언어 단위에 붙는 파생 접미사에 대하여”, 『사전편찬학 연구』 8,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 심혜령(1999), “접미사의 사전처리”, 『사전편찬학연구』 9,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 유창돈(1980), 『어휘사 연구』, 이우출판사.
- 유현경(1996), “국어 형용사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 유현경(1999), “접두사의 사전처리”, 『사전편찬학연구』 9,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 이병근(1986), “국어 사전과 파생어”, 『어학연구』 22-3
- 이상섭(1998), “사전의 뜻풀이에 대한 소견”, 『사전편찬학연구』 8,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 이원근(1996), “우리말 도움토씨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 임동훈(1991), “현대 국어 형식명사 연구”, 『국어연구』 103
- 임홍빈(1979), “용언의 어근 분리 현상에 대하여”, 『언어』 4-2
- 임홍빈(1989), “통사적 파생에 대하여”, 『어학연구』 25-1
- 정희정(1997), “국어 명사의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 채 완(1998), “의존명사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8-1, 국립국어연구원.
- 최형용(1997), “형식명사 보조사 접미사의 상관관계”, 『국어연구』 148
- 하치근(1993), 『국어 파생형태론』, 남명문화사.
- 홍사만(1983), 『국어 특수조사론』, 학문사.
- 홍양추(1987), “매인 이름씨의 일반적 특징”, 『건국어문학』 11·12합집

사전류

-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민수 / 고영근 / 임홍빈 / 이승재 편(1991).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 동아출판사 편집국 편(1990), <동아 새국어 사전>: 동아출판사.
- 서상규 외 편저(2004),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문화관광부 한국어 세계화재단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 한국어 사전>: 두산동아.
- 한글학회 편(1992),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 북한 사회과학출판사.(1992)<조선말 대사전>

<국문초록>

학습사전에서의 접사 처리의 문제

심 혜 령

이 글은 일반적으로 형태론적인 관점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접사들을 중심으로 일반 사전에서의 처리를 살펴본 다음, 이를 토대로 학습용 사전에서는 접사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논의해보는 것이 목적이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파생은 형태론적 단위에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파생접사의 작용역은 단어 내부에 국한되고, 결합하는 요소도 통사적으로·의미적으로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설정된 파생접사의 특성에 반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만한 경우나 실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기초 학습사전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러한 접사들은 생산성이 높고 자립적이어서 표제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 기술에서 일관적인 설명과 원칙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접사가 비록 어휘적 자립성이 적다는 점에서 기존 사전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거나 간단하게 다루어지고 있었으나 실은 접사 안에도 다양한 양상과 단계의 자립성과 생산성을 갖춘 접사가 존재하고 있는 한, 그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접사는 사전에서 필히 그 파생어와의 관련성이 명시되는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주제어: 교육용 기초학습사전, 올림말, 접사, 접두사, 접미사, 문법적 자질.

<Abstract>

The Study of korean Affixes in a learner's Basic Korean dictionary

Hye-ryeong, Shim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study Korean Affixes in a learner's Basic Korean dictionary.

This paper argues against the traditional position that affixes are divided into inflectional affix and derivational affix.

And this paper propose that we need to study carefully about affixes which have syntactic properties in it and we also need to consider how classify and describe the affixes thar have syntactic properties in it.

Key word: leaner's Basic Korean dictionary, entry, affixes, prefix, suffix, syntactic properties

논문 받은 날: 2007년 3월 31일

실기로 한 날: 2007년 4월 26일